

예배 및 모임안내

2026-25 2026년 06월 21일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28	07. 05	07. 09
대 표 기 도	이윤선 성도	이상호 목사	정환영 형제
성 경 봉 독	이윤선 성도	최상우 형제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6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됨을 축하합니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중 기도하는 달입니다.
4. 귀국 - 김소연 자매(22일, 월)
5. 입시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 (Euro)	
온라인헌금(5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브레멘 한민교회 -
Bremen Hanmin Church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 (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59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최종열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행 5 : 25 - 32(신p195) (Apostelgeschichte 5:25~32)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며,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보여 줍니다.

1. 불의한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언제나 진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도들을 구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선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2.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국가의 명령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3.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채찍질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은 죄와 어둠에 맞서는 진리이기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는 불의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성도들은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